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종단적 융합연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최정현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A Converged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i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Data of KCYPS

Jung-Hyun Choi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초등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변화 정도와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종단적인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초1 패널 자료 중 5차, 6차 7차년도에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PSAW 18.0와 AMO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750명으로 남자가 903명(51.6%), 여자는 847명(48.4%)이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29 \pm .51$, $3.19 \pm .55$, 그리고 $3.15 \pm .57$ 이었다.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12 \pm .52$, $3.09 \pm .59$, 그리고 $3.15 \pm .55$ 이었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전시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자아존중감, 공동체의식, 초등학생,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Abstract The study used cross-lagged path modeling to examine the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among adolescents. This is a longitudinal study designed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change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community spirit in Korea.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by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rom 2014 through 2016. Participants were surveyed from the 5th grade to the 7th, which belonged to the 1st elementary school cohort panel of the KCYPS. To be used as the data of this study, children should have all information at 3-time points: the 5th grade; 6th grade; 7th grad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PSAW 18.0 and AMOS statistical program.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903 males (51.6%) and 847 females (48.4%). The level of self-esteem was $3.29 \pm .51$, $3.19 \pm .55$, and $3.15 \pm .57$ point at 5th grade, 6th grade, and 7th grade each. The level of community spirit was $3.12 \pm .52$, $3.09 \pm .59$, $3.15 \pm .55$ point respectively. Community spirit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is consistently predicted by previous self-esteem. Likewise self-esteem has a significant predictive effect on subsequent community spirit.

Key Words : Self-esteem, Community spirit, Elementary student,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unding for this paper was provided by Namseou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Jung-Hyun Choi(jhc@nsu.ac.kr)

Received September 9, 2019
Accepted December 20, 2019

Revised October 22, 2019
Published Decem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현대 사회의 지식과 기술 발전은 그 어느 때 보다 가속화 되고 있어, 뒤처지지 않고 승자가 되려고 하는 개인의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은 더욱 진보된 지식과 기술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주의를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부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인주의 및 사회적인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동체의식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창 시절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시민적 태도와 지역사회 참여성이 증진되었음은 물론, 향후의 시민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1]. 공동체의식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삶을 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공동체의식을 핵심역량 중 하나로 강조하였다[2]. 공동체의식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집단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속감, 집단과 개인 사이의 상호 관여성, 집단 내에 있는 자원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감정, 그리고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3]. 즉, 공동체의식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 상호 유대감,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되며 이는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강화된다[3,4]. 공동체의식은 참여의식과 타인배려로 구분되는데[5], 이는 민주시민사회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다[6].

한편,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일반적 요소로서[7],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부턴 안정된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되나, 사춘기에 접어드는 고학년부턴은 보다 자신에 대해 엄격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과 부모의 과잉기대에 노출되어 있어 자신의 성취 결과를 자신이 정한 내적 기준이나 주위의 기대 수준에 비추어 긍정 또는 부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의 고저로 연결된다[9].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생기므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실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고, 인생목표를 설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민주시민사회의 중요한 자질인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특성으로서 소진감과 고립감은 선행연구에서 언

급된 바 있으나[10-12], 자아존중감과의 인과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 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성장 발달 단계에 있으므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으로 키우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자기회귀교차지연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방향성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후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둘째,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향후 공동체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공동체의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2010년 초1패널의 5차년도(초등학교 5학년), 6차년도(초등학교 6학년) 및 7차년도(중학교 1학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5차년도 2110명(남 1,086명, 여 1,024명), 6차년도 2067명(남 1,066명, 여 1,001명), 7차년도 2002명(남 1,039명, 여 963명) 중 결측 항목을 제외한 1750명(남 903명, 여 8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해 지각된 감각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13] 척도 중에서 발췌된 것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사용된 긍정문항 4개를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는데 최희철과 김병석의 초등패널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의 긍정문항을 측정변수로 구성한 바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alpha는 최희철과 김병석 연구[14]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서 각각 .82, .83, .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에서 각각 .80, .80, .83이었다.

2.2.2 공동체의식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갖는 심리적 구인으로 집단이나 공동체, 조직 안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유대 등을 전제로 하는 의식을 의미한다[15].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에서 공동체의식에 포함된 '나는 주변에 어려움이 처해있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등 4개 문항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는 박수원과 김셋별의 초등패널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수로 구성된 것이다[15]. 공동체의식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였다. 공동체 의식의 Cronbach's alpha는 박수원과 김셋별 연구[15]의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에서 각각 .79, .74,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에서 각각 .78, .81, .81이었다.

2.3 자료 수집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2010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자료 중 초1 패널의 5차년도(초5), 6차년도(초6), 7차년도(중1)의 이차자료를 사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변화 관계를 알아보고자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생들이 성장함에 따라 자아 존중감이 발달하게 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도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16]. 자기회귀교차지연의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종단연구의 경우 잠재변수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므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해당 변인의 개념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측정변인의 계수에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을 검증하여 확인하였다. 또, 한 시점의 잠재변인이 다음시점의 잠재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하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동일성을 확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각각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 회귀계수가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할지를 검증한 뒤 교차회귀계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할지를 검증하였다. 오차공분산동일성은 동일 시점에서 측정된 잠재변인의 오차항 사이 공변량이 시간경과에 따라 동일할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각각의 오차항간의 공변량이 다음 시점과 동일할지로 검정하였다. 모형의 비교에서는 CFI(Comparative Fit Index)값의 변화량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TLI(Tucker-Lewis Index)를 고려하였다. 이때, CFI의 값이 .01을 초과하여 떨어지지 않으면 동등화 제약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17].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03명(51.6%), 여자가 847명(48.4%)으로 총 1750명이다. 스스로 인지한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가 43.6%, 좋다가 53.6%로 대부분 건강한 상태로 인지하고 있다. 주거상태는 아파트에 사는 대상자가 74.3%로 가장 높았고 단독주택도 13.7%였다. 부모학력은 대학교 이상이 부 42.0%, 모 30.4%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750)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903 (51.6%)
	Female	847 (48.4%)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763 (43.6%)
	good	942 (53.8%)
	bad	39 (2.2%)
	very bad	6 (0.3%)
Type of house	Single house	239 (13.7%)
	Apartment	1,300 (74.3%)
	Town house	102 (5.8%)
	Multi-generational	85 (4.9%)
	Shopping house	19 (1.1%)
	Other	5 (0.3%)
Education of father	Under middle school	21 (1.2%)
	High school	665 (38.0%)
	College	329 (18.8%)
	Over bachelor's degree	735 (42.0%)
Education of mother	Under middle school	16 (0.9%)
	High school	776 (44.3%)
	College	425 (24.3%)
	Over bachelor degree	533 (30.4%)

3.2.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아존중감의 5차년도(초5), 6차년도(초6), 7차년도(중1) 평균은 각각 3.29점, 3.19점, 3.15점으로 고학력이 될수록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공동체의식은 각각 3.12점, 3.09점, 3.15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왜도는 -.03~-.28, 첨도는 -.38~.01 사이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왜도는 절대값 3이하, 첨도는 절대값 10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1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N=1750)

Variable	Mean±SD	Skewness	Kurtosis
Self-esteem 5 th	3.29±.51	-.28	-.22
Self-esteem 6 th	3.19±.55	-.27	-.16
Self-esteem 7 th	3.15±.57	-.24	.01
Community spirit 5 th	3.12±.56	-.20	-.13
Community spirit 6 th	3.09±.59	-.21	-.04
Community spirit 7 th	3.15±.55	-.03	-.38

3.3. 측정변인의 상관분석

상관관계분석에서 자아존중감의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공동체의식의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는 Table 3과 같이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Self-esteem 5 th	1				
Self-esteem 6 th	.42***	1			
Self-esteem 7 th	.33***	.38***	1		
Community spirit 5 th	.39***	.30***	.22***	1	
Community spirit 6 th	.25***	.40***	.22***	.47***	1
Community spirit 7 th	.18***	.20***	.35***	.34***	.39***

1:Self-esteem 5th, 2:Self-esteem 6th, 3:Self-esteem 7th, 4:Community spirit 5th, 5:Community spirit 6th, 6:Community spirit 7th. ***:p<.001

3.4.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기회귀교차 지연 모형 검증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의 검증 도형은 Fig. 1과 같으며, 모형 전체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4를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모형1은 기본모형으로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 모형의 CFI와 RMSEA 값은 .964와 .039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기본모형은 대체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모형2는 자아존중감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5, 6, 7차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w1=w4=w7, w2=w5=w8, w3=w6=w9).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Delta\chi^2(\Delta df=6, N=1,750)=5.11$ 로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lta CFI=0$, $\Delta RMSEA=0$ 으로 자아존중감의 측정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모형3은 모형2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계수를 5, 6, 7차 시점에서 모두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w10=w13=w16, w11=w14=w17, w12=w15=w18). 모형3은 모형2에 비해 $\Delta\chi^2(\Delta df=6, N=1,750)=9.19$ 로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lta CFI=0$, $\Delta RMSEA$ 는 .001점 감소함으로써 보다 나은 모형이 되었다.

모형4는 모형3에 더하여 자아존중감의 자기회귀(autoregressive)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고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w19=w20). 모형4는 모형3에

비해 $\Delta\chi^2(\Delta df=1, N=1,750)=6.06$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표본이 1,750명이 것을 고려하면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는 RMSEA로 대신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20]. $\Delta RMSEA=0$ 으로 자아존중감 사이에도 경로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5는 모형4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autoregressive)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고자 제약을 가한 모형이다($w25=w26$). 모형5는 모형4에 비해 $\Delta\chi^2(\Delta df=1, N=1,750)=3.81$ 로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lta CFI=0$, $\Delta RMSEA=0$ 으로 공동체의식 사이에도 경로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6는 모형5에 더하여 자아존중감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교차지연(cross-lagged)계수의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w21=w22$). 모형6은 모형5와 비교할 때 $\Delta\chi^2(\Delta df=1, N=1,750)=9.85$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고 표본이 1,750명이 것을 고려하면 모형의 간명도를 고려하는 CFI나 RMSEA로 대신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20]. $\Delta CFI=0$, $\Delta RMSEA=0$ 의 결과로 보아 모형5의 적합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에서 공동체의식으로 가는 교차지연 경로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7은 모형6에 더하여 공동체의식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교차지연(cross-lagged)계수의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w23=w24$). 모형7은 모형6과 비교할 때 $\Delta\chi^2(\Delta df=1, N=1,750)=2.71$ 로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lta CFI=0$, $\Delta RMSEA=0$ 의 결과로 보아 모형6의 적합도와 동일하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에서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교차지연 경로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모형8은 모형7에 더하여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모형의 간명성을 추구하는 모형이다($c1=c2$). 모형8은 모형 7과 비교해 볼 때 $\Delta\chi^2(\Delta df=1, N=1,750)=0.02$ 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두 모형은 유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Delta CFI=0$, $\Delta RMSEA=0$ 의 결과로 모형의 오차분산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그리고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모형8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8의 적합도는 $\chi^2(df=234, N=1,750)=834.84$, TLI=.956, RMSEA=.038

로 비교적 적합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21] RMSEA 값의 경우 .05이하, TLI 값의 경우 .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하였다.

3.5.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효과

최종적으로 설정된 모형8을 바탕으로, Fig. 2의 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Table 5에 따르면 모든 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5차년도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51, <.001$). 둘째, 초5에 가졌던 자아존중감이 초6, 중1 때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기회귀(autoregressive) 관계를 통해 나타났다($\beta=.51, p<.001, \beta=.49, p<.001$). 또 초5에 가졌던 공동체의식이 초6, 중1 때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8, p<.001, \beta=.40, p<.001$). 셋째, 교차지연(cross-lagged)추정에 따르면 초5에 가졌던 자아존중감이 초6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beta=.13, p<.001$), 초6의 자아존중감이 중1의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4, p<.001$). 또 초5에 가졌던 공동체의식이 초6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beta=.05, p=.04$), 초6의 공동체의식이 중1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 p=.04$). 표준화 값을 비교해보면, 이전 시기의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기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 시기의 공동체의식이 이후 시기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Overview of standardized stability and cross-lagged coefficients

Autoregressive path	b(β)	S.E
SE 5th \rightarrow SE 6th	.54(.51)***	.02
SE 6th \rightarrow SE 7th	.54(.49)***	.02
CS 5th \rightarrow CS 6th	.39(.38)***	.02
CS 6th \rightarrow CS 7th	.39(.40)***	.02
SE 5th \rightarrow CS 6th	.10(.13)***	.02
SE 6th \rightarrow CS 7th	.10(.14)***	.02
CS 5th \rightarrow SE 6th	.06(.05)*	.03
CS 6th \rightarrow CS 7th	.39(.40)***	.02

*:p<.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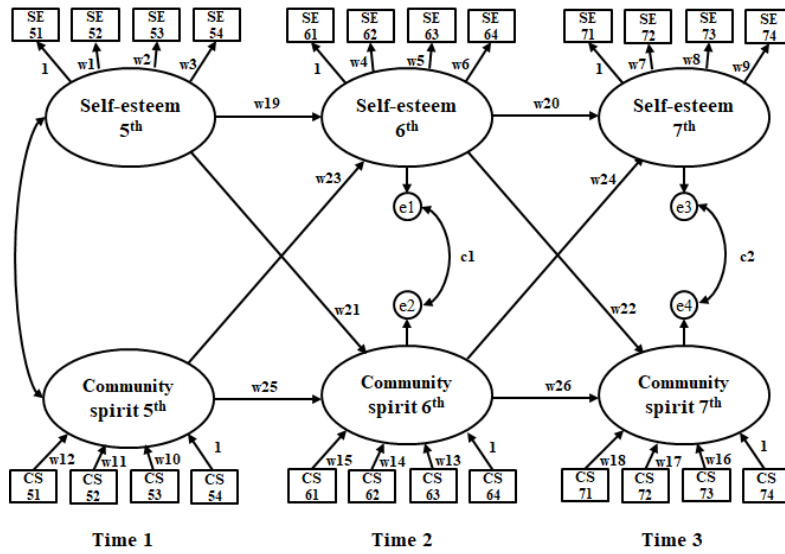


Fig. 1.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SE:Self-esteem, CS: Community spirit)

Table 4. Comparison of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s

Model	χ^2	df	p	TLI	RMSEA	CFI	Δ CFI	$\Delta\chi^2$	Δ df
Model 1	798.09	217	<.001	.954	.039	.964	-	-	-
Model 2	803.20	223	<.001	.955	.039	.964	.000	5.11	6
Model 3	812.39	229	<.001	.956	.038	.964	.000	9.19	6
Model 4	818.45	230	<.001	.956	.038	.963	-.001	6.06	1
Model 5	822.26	231	<.001	.956	.038	.963	.000	3.81	1
Model 6	832.11	232	<.001	.956	.038	.963	.000	9.85	1
Model 7	834.82	233	<.001	.956	.038	.963	.000	2.71	1
Model 8	834.84	234	<.001	.956	.038	.963	.000	0.0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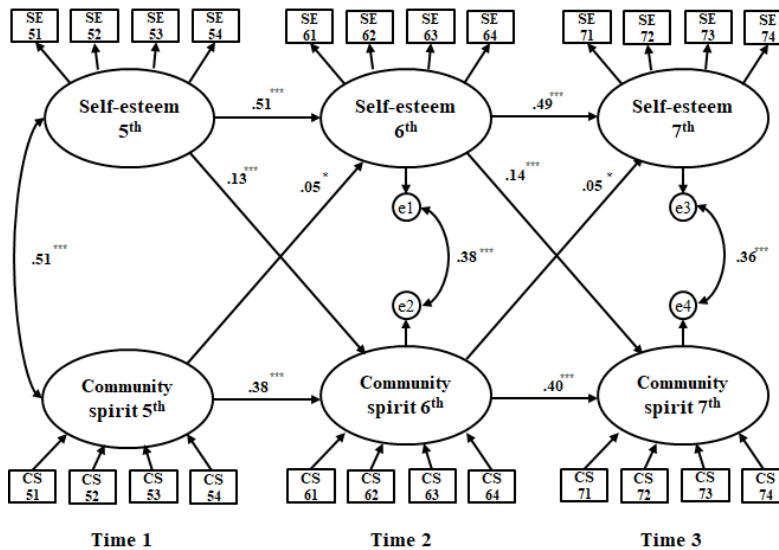


Fig. 2.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final model Numbers on paths ar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p<.05, ***p<.001

4. 논의

청소년기는 자아존중감이 확립되고, 타인과의 상호 작용 및 소속감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올바른 시민의식을 확립하는데 많은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로서 초등학교 5학년 시점의 자아존중감이 초6, 중1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회귀효과로 알아본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희철과 김병석이 초등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14]와 유사하며 이는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바뀌기 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선행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19,22]. 한편, 초5, 초6, 중1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역시 고학년이 될수록 자신에 대해 보다 엄격해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8].

두 번째 연구문제로서 공동체의식 역시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일현과 신효정의 한국아동·청소년 중1 패널 자료 연구결과[20]와 유사하다. 또한 공동체의식 수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바뀌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였지만 자아존중감보다는 자기회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간의 교차지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 패널 5년 자료를 대상으로 한 경기교육재단의 선행연구[23]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면적인 선행연구[24]에서도 자아존중감이 공동체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인 표본의 청소년 패널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

에 따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면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 역시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신뢰할수록, 주변에 대한 수용과 배려가 높아지고, 점차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긍정적 역량을 발휘할 때 공동체의식도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23]를 지지한다.

네 번째 연구문제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 사이의 교차지연 효과에서, 공동체의식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이 이후 시기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영아와 박선숙의 연구에서도 공동체의식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5], 이는 공동체의식이 높은 청소년인 경우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높고, 상부상조의 인식과 주변으로부터의 연대의식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존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상호 교차지연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동체의식은 집단에 소속되어 공동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통해 점차적으로 생성되는데[26] 집단생활을 경험하는 학교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함양되도록 동시에 배려한다면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이 상호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인성 함양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식을 갖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 중, 초1패널의 5차~7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903명(51.6%), 여자가 847명(48.4%)으로 총 1750명이다.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그리고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모형8의 적합도는 $\chi^2(df=234, N=1,750)=834.84$, TLI=.956, RMSEA=.038로 비교적 적합하게 나타났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초등학교 5학년부

중학교 1학년까지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은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또한 이전 시점의 자아존중감은 이후 시점의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이전시점의 공동체의식은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시점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할 때 시점 별 조사 집단이 상이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안하고자 한다. 초1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하는 자아존중감과 공동체의식에 관한 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 E. Moley, M. McFarland, D. Miron, S. Mercer & V. Ilustre. (2002). Change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and intentions for civic involvement as a function of service-learning experiences.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9, 18-26.
http://hdl.handle.net/2027/spo.3239521.0009.102
- [2] Ministry of Education. (2018). *Changing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 2015 revised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Official Blog.
https://if-blog.tistory.com/7855
- [3] D. W. McMillan & D. M. Chavis.(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DOI : 10.1002/1520-6629(198601)14:1<6::AID-JCO P2290140103>3.0.CO;2-1
- [4] E. B. Stevens, L. A. Jason, J. R. Ferrari, B. Olson & R. Legler. (2012). Sense of community among individuals in substance abuse recovery. *Journal of Groups in Addiction & Recovery*, 7(1), 15-28.
DOI : 10.1080/1556035X.2012.632319
- [5] J. E. Jung, K. S. Kim & H. Kwak. (2018).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among relationship formation, career maturity, sense of community of early adolesc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29(1), 35-58.
DOI : 10.20972/kjee.29.1.201803.35
- [6] T. Kim. (2017).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t school and in the local community on adolescents' altruistic life goal for the enlarged community. *The Korean Society for Sociology of Education*, 27(1), 31-53.
DOI : 10.32465/ksocio.2017.27.1.002
- [7] H. W. Marsh & R. G. Craven. (2006). Reciprocal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formance on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beyond seductive pleasure and unidimensional perspectiv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 133-163.
DOI : 10.1111/j.1745-6916.2006.00010.x
- [8] J. H. Kim, H. J. Kim, E. K. Son, Y. S. Song & I. S. Jung. (2004).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 Dongmoon Publishing Co.
- [9] S. C. Han, A. M. Choi & S. H. Park. (2004). *Adolescent psychology*. Seoul : Yangsuewon Publishing Co.
- [10] M. E. McCarthy, G. M. H. Pretty & V. Catano. (1990).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nd student burnout.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1, 211-216.
https://psycnet.apa.org/record/1990-26907-001
- [11] C. K. Morgan & M. Tam. (1999).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distance education student attrition. *Distance Education*, 20(1), 96-108.
DOI : 10.1080/0158791990200108
- [12] C. Haythornthwaite, M. Kazmer, J. Robins & S. Shoemaker. (2000). Making connections: community among computer-supported distance learners.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2000 Conference*. San Antonio, Texas.
- [13]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 image*. New york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4] H. C. Choi & B. S. Kim. (2009).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ies on Korean Youth*, 20(2), 327-356.
- [15] S. W. Park & S. Kim. (2016). Reciprocal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7(2), 5-32.
- [16] S. H. Hong & S. K. You. (2004).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1), 381-392.
- [17] G. W. Cheung & R. B. Rensvold.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2), 233-255.
DOI : 10.1207/S15328007SEM0902_5

- [18] R. B. Kline.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Guilford Press.
- [19] G. Heo. (2012).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 barrier in adolescents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119-134.
- [20] I. H. Jo & H. J. Shin. (2019).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sense of community in adolescents: throug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5(1), 103-125.
- [21] K. A. Bollen & J. S. Long. (1993).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Focus Edition, London : SAGE Publications.
- [22] D. A. Cole et al.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23] H. S. Park. (2019).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 of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characteristics on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community among Korea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5(1), 555-576.
- [24] S. B. Jung, J. t. Kim & E. S. Kim. (2016). Structural relationship model among physical competence, self-esteem,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Korea Society for Wellness*, 11(3), 327-343.
- [25] Y. A. Ah & S. S. Park.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community spiri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9, 95-117.
- [26] W. A. Galston.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1), 217-234.
DOI : 10.1146/annurev.polisci.4.1.217

최정현(Jung-Hyun Choi)

[정회원]



- 1999년 3월 : 동경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지역사회 간호, 보건교육, 청소년 도박예방 교육
- E-Mail : jhc@nsu.ac.kr